

10·27법난 비망 2015년 미술전 기념사

오늘을 기념하고 빛내기 위해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과 미술전을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불교계의 밝은 앞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만해스님께서서는 ‘잊히지 않는 생각보다 잊고져 하는 그것이 더욱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10·27 법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쇠구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슴에 맺힌 상처는 치유해야 할 것이고, 잊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난은 잊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후대의 경계로 삼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력에 의해 강제로 탄압 받은 역사를 우리는 법난이라고 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와 민족문화의 정기가 짓밟혔습니다. 그것도 전제왕권시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근대시민정신의 완성과 민주주의의 시대라 일컫는 현대에 일어난 사건이란 점에서 통탄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유구한 불교사의 전개 속에서 몇 번의 법난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은 그런 법난을 거울삼아 佛日을 더욱 빛나도록 노력했습니다. 오늘의 역사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세찬 역사의 파고를 넘어 왔기에 10·27 법난 역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말 속에는 가슴에 맺힌 통분을 삭히고, 불조의 혜명을 四海에 밝히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10·27 법난을 기념하는 2015년 미술전을 기획한 의도 역시 그런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사진, 판화 부문으로 작품을 공모하여 10·27 법난을 기념하는 행사의 콘텐츠로 활용한다면 가슴 아픈 역사

를 기록함과 동시에, 예술적인 승화를 통해 불교도 전체의 시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술전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잊혀져가는 10·27 법난의 역사적 진실을 공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실의 전승과 그것의 예술적 승화는 10·27 법난을 통해 불교의 내일을 개척하는 기폭제가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억을 넘어 치유와 문화 창달의 동력인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을 거울삼아,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한국사회에 이바지 하는 불교의 모습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핍박과 압제는 아픔을 주었지만 그것을 승화시키는 것은 큰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10·27 법난을 기념하는 미술전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그 취지를 잘 살려 불교와 민족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뜻 깊은 전시회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마음을 드리며, 오늘의 노력이 풍성한 결실을 이루고 모두에게 향기로운 마음으로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9(2015)년 10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